

“차별 없는 사회!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

2022.8.26(금)

성명서

더불어민주당
전국장애인위원회

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

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

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 및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
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(위원장 윤희식)는 지난 19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장애인 관련 당규 개정사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.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앞서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당헌·당규분과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당원 중 활동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발달·정신장애인의 목소리도 정책으로 잘 반영하기 위하여 발달·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을 장애인 권리당원으로 등록 허용,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 권한 부여, 운영위원 임명 자격 부여하는 등의 당규 개정을 건의하였다.

지난 19일 제18차 당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건의가 반영되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중 제12조(선거인단 구성) 3항 5에서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장애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(발달·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)으로,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40조(전국장애인위원회) 3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중 장애인위 소속 권리당원 중 발달·정신장애인 부모(부모 중 1인)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.

당무위원회의 이번 장애인 관련 당규 개정이 의사표현이 힘든 발달·정신장애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부모님 당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. 앞으로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발달·정신장애인 부모 당원들의 목소리도 잘 수렴하여 정신·발달장애인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.